

대 상

# 아 그거 아닌데

▶ 한승헌, 김가희, 김세윤, 강승보(한민고등학교)

리포트

“1인분 2만 원 삼겹살 시대,  
과연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 때문인가?”

영 상

삼겹살 살인사건



## 팀 소개 인사 및 각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 그거 아닌데' 팀입니다. 최근 가짜 뉴스의 범람으로 인해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결성된 팀입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는 현 상황에서, 저희 팀은 정확한 팩트체크를 통해 진실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아닌데'라는 표현은 잘못된 정보를 반박하고 올바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말의 초반부로서, 이는 저희 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가장 먼저 밝혀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누구보다 신속하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을 줄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팩트체크 리포트

## “1인분 2만 원 삼겹살 시대, 과연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 때문인가?”

###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음식, 삼겹살! 그러나 요즘 삼겹살의 가격이 급등하여 사람들이 외식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이 들린다. 그나마 외식으로 먹을 만한 음식 중 저렴한 음식이 삼겹살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니게 되었다. 외식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가정에서도 마트에서 삼겹살을 사서 요리해 먹는 시대가 되었다. 삼겹살 가격이 왜 올랐는지 궁금하여 뉴스를 찾아봤지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여러 기사에서는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 원에 근접하였으나 실제 가격은 3,500원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만 보도할 뿐이었다. 우리가 소비하는 삼겹살의 ‘실제 가격’은 무엇일까? 삼겹살의 외식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정말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 때문일까? 삼겹살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 삼겹살 가격의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으로 위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 1. 삼겹살의 소비자가격과 외식 가격 파악

- 1) 다양한 통계 자료 찾아보기

- 2) 여러 마트와 삼겹살 전문 식당에 방문하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삼겹살 가격 확인하기

##### 2. 외식비 상승 원인 파악

- 1) 다양한 기사를 찾아 보도된 정보 검증하기
- 2) 돼지고기의 유통구조 파악

돼지고기의 유통구조로 인해 삼겹살 가격에 관한 혼란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어 이를 조사하기로 계획하였다.

- (1) 삼겹살의 유통 단계별 가격에 관한 통계 자료 찾아보기
- (2) 농·축·수산물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 찾아보기
- (3) 삼겹살 가격에 관해 전문가 인터뷰 진행

### 체크해보기

#### ① 찾아보기

물어보기

직접해보기

반론의견

#### 관련 사이트 조사

##### 1. 삼겹살의 소비자가격과 외식 가격

###### 1) 돼지고기(삼겹살) 100g당 평균 소비자가격

2024년 5월 기준 돼지고기(삼겹살) 100g당 평균 소비자가격은 다음과 같다.

〈표 1〉 삼겹살 100g당 평균 소비자가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	25	24	28	30	24	25	0	25	26	27	24	24	27	21	24	26
62	96	09	04	64	04	35		08	92	18	93	61	23	92	00	29

\*세종의 가격정보는 충남에 포함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공개, <https://www.mois.go.kr/frt/sub/a02/mulMain/screen.do>

연도별 삼겹살 100g당 소비자가격의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2〉 삼겹살 100g당 소비자가격 변화 추이

(단위: 원/100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22	15,533	15,723	15,624	15,840	15,961	16,336	16,136	16,013	15,691	16,107	15,319	14,728	15,751
2023	15,421	14,894	13,234	13,046	13,875	13,400	13,595	13,818	14,258	13,534	13,599	13,203	13,817
2024	13,999	13,873	13,034	13,211	13,392	13,376	13,496	13,523	13,716	14,104	13,722	13,763	13,600
2025	13,880												13,880
평년	14,721	14,771	14,084	14,055	14,573	14,310	14,687	14,753	14,914	14,433	14,363	14,507	

\*출처: <https://www.ekapepia.com/priceComparison/poducerPrice/retail/periodPriceMonths.do?menuId=menu100238&boardInfoNo>

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2024년 5월 기준 인천에서 삼겹살이 100g당 2,804원으로 가장 비싸고, 경남에서 2,400원으로 가장 저렴하였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삼겹살 100g이 2,377원에 소비자에게 팔렸다. 한편, 삼겹살 가격은 대체로 1월에서 5월까지 상승하다가 6월에 정점을 찍고, 7월에서 12월까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가격 변동에는 여름에 삼겹살 수요가 집중되는 것, 출하 시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겹살의 가격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인데, 2022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으로 가격이 급등하였다.

## 2) 삼겹살의 환산 후(200g) 평균 외식 가격

2024년 5월 기준 삼겹살의 환산 후(200g) 평균 외식 가격은 다음과 같다.

〈표 3〉 지역별 삼겹살 200g당 평균 외식 가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83	16,350	17,120	17,567	15,289	18,333	17,010	0	17,434	15,049	14,340	17,064	15,829	17,954	15,919	17,944	17,444

\*세종의 가격정보는 충남에 포함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 <https://www.mois.go.kr/frt/sub/a02/mulMain/screen.do>

지역별로는 2024년 5월 기준 서울에서 삼겹살의 외식 가격이 200g당 20,083원으로 가장 비싸고, 충북에서 14,340원으로 가장 싸다. 서울 기준으로 2024년 5월의 삼겹살 외식 가격은 2021년 5월 대비 3,502원 상승했다.

## 뉴스 기사에 대한 근거 조사

### 2. 외식비 상승의 원인

#### 1)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 검증

**기사 1)** ‘돼지값 떨어져도 ‘금겹살’ 논란…호들갑 언론에 멍드는 농심’(이민우, 농민신문, 2024.6.16,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614500654>)이라는 기사에 포함된 정보를 검증하였다. 기사의 주된 내용은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자 일부 보도는 삼겹살 외식비 상승 원인을 돼지고기 가격 인상에서 찾았으나, 한돈 자조금 협회 및 농가들은 외식비 상승의 주된 원인이 돼지고기 가격이 아니라, 그 외의 제반 비용의 상승에 있다고 반박하였다는 것이다. 검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 검증 ①

2024년, 돼지 유행성 설사병(PED) 등 가축 질병 영향으로 돼지 출하량이 감소하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였다.

- 검증결과: ‘사실임.’

- 출처: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사이트 “농넷”

<https://www.nongnet.or.kr/front/M000000138/marketInfo/livestock.do>



〈그림 1〉 2024년 월별 돼지 도축 두수와 평균가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돼지 공급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였다.

세부 검증 ②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서울의 삼겹살 1인분(200g 기준) 가격이 2만 83원으로 처음으로 2만 원을 넘었다.

- 검증결과: '사실임.'
- 출처: 한국소비자원

<https://www.price.go.kr/tprice/portal/servicepriceinfo/dineoutprice/dineOutPriceList.do>  
 기사 내용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2023년 6월 실제로 서울의 외식 삼겹살 가격(환산 후)은 20,083원으로 2만 원이 넘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는 '외식비'로 분류한 내용을 기사에서는 '삼겹살'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대중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외식 삼겹살'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세부 검증 ③

한돈 자조금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100g당 2,377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 떨어졌고, 같은 기간 돼지고기 도매가격(경락값)은 kg당 5,278원으로 9.9% 낮아졌다.

-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소비자가격-기간별 가격-월별가격)

<https://www.ekapepia.com/priceComparison/poducerPrice/retail/periodPriceMonths.do>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삼겹살 100g당 소비자가격은 2023년 5월 2,639원에서 2024년 5월 2,377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돼지(탕박) 1kg당 평균 경락가격은 2023년 5월 5,340원에서 2024년 5월 5,907원으로 오히려 상승했다.

세부 검증 ④ \*한돈 자조금 관리위원회 보도 자료 추가 검증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 돼지고기는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는 '24년 5월 115.96으로 전년 동월 대비 6.42%('23. 5월 : 122.38)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농축수산물의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9.71% 상승한 것과 비교해보면 돼지고기는 예외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 출처: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삼겹살 외식 1인분 2만원 중 실제 고깃값은 3,500원에 불과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하락...외식비엔 각종 제반 비용 모두 포함', 2024. 06. 12

통계청,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보도자료)', 2024. 06. 04

정부가 발표한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9% 상승하였다. 돼지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2% 하락하였다. 하지만, 축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하락하였고 국산 쇠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3%, 닭고기는 7.8% 하락하는 등 돼지고기만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세부 검증 ⑤

한돈 자조금 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삼겹살 외식비 중 실제 삼겹살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17.4%에 불과하고 82.6%는 모두 제반 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삼겹살 도매가격은 200g당 약 3,500원이다.

<자료 1> 한돈 자조금 관리 위원회의 6월 12일 자 보도 자료

[표 1]

구분	금액	비율
삼겹 외식비* (a)	20,083/200g	100%
삼겹 도매가격(b)	3,500/200g	17.4%
기타 제반비용**(a-b)	16,583/200g	82.6%

\* 한국소비자원 발표가격(20,083원/200g) 기준

\*\* 제반비용 : 인건비, 임대료, 전기료, 채소, 기타 양념비 등

첫째, 삼겹살 도매가격이 3,500원이라는 기사 속 근거를 검증하였다.

- 검증결과: '체감되는 물가와는 차이 있음.'
- 출처: 미트박스(2024-07-04(목요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양고기 도매시세 -

미트박스 (meatbox.co.kr)

축산물품 도매 업체(미트박스)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4일 기준 삼겹살의 도매가는 1kg당 브랜드에 따라 최저가 13,040원, 최고가 21,470원이었다. 삼겹살 도매 상품 33개의 평균 가격은 200g당 약 3,760원으로 한돈 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보다 약 260원 비쌌다.

**둘째, 제반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을 검증하였다.**

- 종합적 검증결과: '일부 사실임.'

**기사 2)** '농산물값 20% 상승...그 뒤엔 외국보다 복잡한 유통 단계'(중앙일보, 오효정, 이아미, 2024.05.0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760>) 라는 기사에 포함된 정보를 검증하였다.

부분 검증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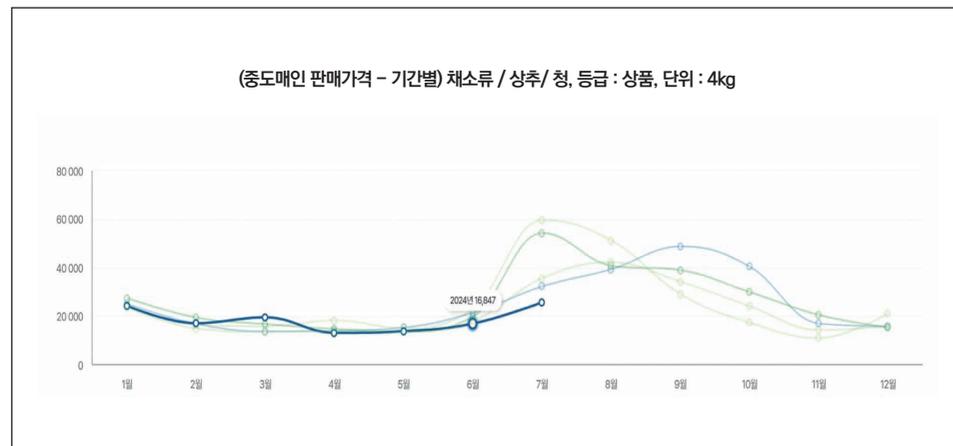
**삼겹살 외식비용 중 제반 비용의 일부가 되는 채소, 과일 등의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 검증결과: '사실임.'

- 출처: KAMIS(가격정보-세부가격정보-중도매인 판매가격)

<https://www.kamis.or.kr/customer/price/wholesale/period.do>

삼겹살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청상추의 중도매인 판매가격을 조사하였다.



채소류 / 상추/ 청, 등급 : 상품, 단위 : 4kg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평년
01월	24,205	27,378	24,245	25,088	23,585
02월	16,995	19,359	16,304	16,779	14,782
03월	19,470	16,622	15,740	13,635	13,384
04월	13,041	14,668	18,147	13,954	13,626
05월	13,714	13,577	15,013	15,186	13,338
06월	16,847	19,707	23,010	21,360	17,918
07월	25,613	54,260	59,611	32,185	35,564
08월	-	40,749	51,226	39,291	42,185
09월	-	38,932	29,023	48,732	34,147
10월	-	29,872	17,241	40,385	24,071
11월	-	20,425	10,883	16,880	14,178
12월	-	15,224	21,042	15,765	15,791
연평균	17,661	25,963	25,340	24,652	21,881

<그림 2> 2024년 월별 상추(청)의 4kg당 중도매인 판매가격 추이

<표 4> 2021년~2024년 월별 상추(청)의 4kg당 중도매인 판매가격

상추(청)의 4kg당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2024년 5월 13,714원에서 6월 16,847원으로 상승하였다. 연평균 가격은 2023년 25,983원에서 2024년 17,661원으로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2024년의 자료가 7월까지밖에 없고, 청상추의 월별가격 변동이 심한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청상추의 연평균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하였다. 상추(적), 깻잎, 양파, 파 등을 조사한 결과도 이와 같았다.

한편, 상차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김치의 원재료인 배추의 가격이 특히 상승세가 컸음을 확인했다. 배추의 가격은 10kg당 2024년 5월 12,780원, 6월 8,367원이었다. 평년 가격은 5월 9,256원이었고 6월 8,205원이었다. 따라서, 채솟값 때문에 삼겹살의 제반 비용이 상승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기사 원문에서는 김밥 속 재료의 가격 상승을 중심으로 다룬다. 즉, 삼겹살에 들어가지 않는 채소들의 가격 상승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기사 원문만을 근거로 하여 삼겹살의 제반 비용에 채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대로 알 수 없다.

부분 검증 ②

**농산물의 유통구조에서는 농산물에 마진이 크게 붙어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

그 결과, 농산물값이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 검증결과: '사실임.'

- 출처: 1. 통계청 2024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40200&bid=213&act=view&list\\_no=430714](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40200&bid=213&act=view&list_no=430714)

2. 농산물 유통경로별 유통마진 조사 연구, 한국유통혁신연구원, 2011

〈품목성질별 등락률 및 기여도〉

2020 = 100, %, %p

	품목수	가중치	지수	등락률		기여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 총 지 수 >	458	1,000.0	114.01	0.1	2.9	0.06	2.93
- 상 품	310	447.6	117.29	-0.2	3.8	-0.11	1.72
· 농축수산물	78	75.6	123.54	-2.4	10.6	-0.19	0.77
(농산물) <sup>1)</sup>	57	38.4	133.09	-3.9	20.3	-0.17	0.76
(채소류)	27	14.3	124.29	-5.8	12.8	-0.09	0.18
(축산물)	6	26.4	114.25	-0.1	0.3	0.00	0.01
(수산물)	15	10.8	111.13	-1.1	0.4	-0.01	0.00

〈표 5〉 상품별 전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등락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 농산물값은 전년 동월 대비 20.3% 증가했다. 또한, 한국유통혁신연구원 자료(2011)에 따르면, 소비자 가격 중 유통이윤(도·소매 통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10개 품목 평균 41.4%였다. 중간 상인의 초과이윤과 과도한 물류비용 등 유통의 비효율성을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농산물에 유통이윤이 크게 붙어 농산물값이 상승했다는 기사의 주장은 타당하다.

**기사 3) 삼겹살 외식 1인분 2만원 "실제 고깃값은 오히려 떨어졌다"**

(머니투데이, 이선민, 2024. 06. 12,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29410>)를 검증하여 기타 제반 비용 중 인건비 상승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였다.

부분 검증 ①

삼겹살 외식비용 중 제반 비용의 일부가 되는 인건비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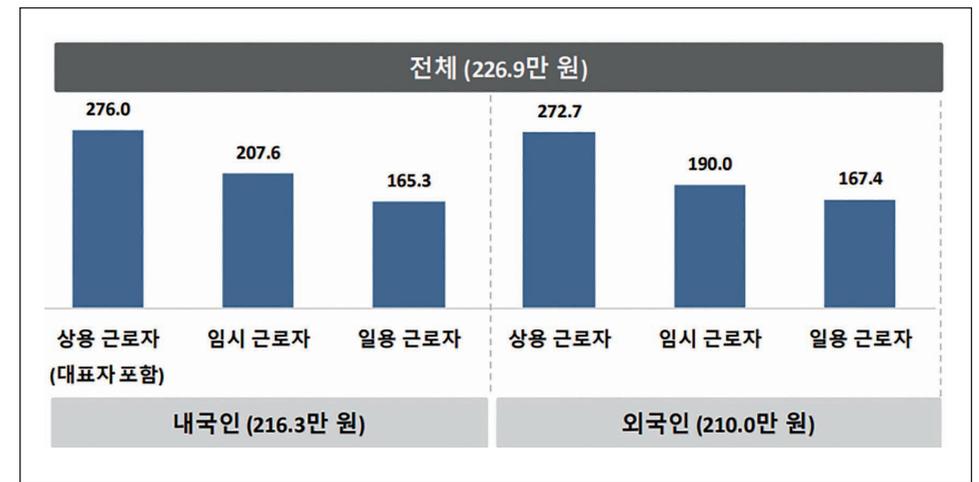
- 검증결과: '사실임.'

- 출처: 1.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https://www.krei.re.kr/foodInfo/selectBbsNttView.do?key=748&bbsNo=508&nttNo=163857&searchCtgr=&searchCnd=all&searchKrd=&pageIndex=1&integrDeptCode>

2.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4&tblId=DT\\_114054\\_028&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4&tblId=DT_114054_028&conn_path=I2)

〈그림 3-28〉 일반음식점: 월 평균 근로형태별 인건비 분포

Base: 각 구분별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만 원



〈그림 3〉 일반음식점의 근로 형태별 월평균 인건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월평균 인건비는 전체 평균 226.9만 원이다. 한식 육류 음식점의 경우 2022년의 평균 인건비가 224.9만 원으로 2021년의 168.7만 원보다 대략 56만 원 증가하였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매출액 중 식재료값은 약 40%, 인건비는 약 30%를 차지한다. 따라서, 제반 비용의 일부인 인건비의 상승이 삼겹살 외식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사의 주장은 타당하다.

2) 돼지고기의 유통구조 파악

(1) 유통단계별 삼겹살 가격에 관한 통계 자료

구분	산지가격	도매가격(탕박)		소비자가격
	농가수취가격 (원/110kg)	평균 (원/kg)	1등급 (원/kg)	삼겹살 (원/kg)
2024-06-28	507 -	6,011 ▲6	6,194 ▲57	26,070 ▲50
2024-06-27	507 ▼6	6,005 ▼75	6,137 ▼128	26,020 ▼90
2024-06-26	513 ▼5	6,080 ▼62	6,265 ▼15	26,110 -
2024-06-25	518 ▼12	6,142 ▼139	6,280 ▼102	26,110 ▼30
2024-06-24	530 ▲12	6,281 ▲136	6,382 ▲66	26,140 ▲60

〈표 6〉 2024년 6월 유통단계별 삼겹살 가격 (일부)

\*가축시장 가격은 농협중앙회의 자료, 도매시장 가격과 소비자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함.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물가격-축종별가격-돼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ekapepia.com))

2024년 6월 28일 기준, 삼겹살의 산지 가격은 kg당 약 4,609원이었다. 도매가격(탕박)은 kg당 평균 6,011원이었다. 박피 돼지는 도매가격이 kg당 3,000원 초반에 형성되었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돼지 중 박피 돼지는 전체 거래의 10~20%이고, 나머지 80~90%는 탕박 돼지이다. 한편, 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은 1kg당 26,070원이었다. 6월 3일에 25,440원이었던 것에 비교해 630원 오른 가격이다.

## (2) 농·축·수산물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sup>1)</sup>

안소영(2020)에 따르면, 축산물유통시장은 유통 단계별로 가격의 연동성이 낮아서 유통비용이 과다하고 산지와 소비자가격 간 연동성이 떨어진다. 만약 산지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도, 연동성이 낮아 소비자가격이 시차를 두고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지 가격과 소비자가격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즉, 축산물 유통구조의 특성상 도매상이 돼지고기를 살 때의 가격과 소비자가 돼지고기를 살 때의 가격 차이가 클 수 있다.

1) 안소영.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대전, 71p



## 1. 건국대 식품 유통경제학과 김태경 교수

▶ 선정 이유: 연합뉴스TV의 출근길 인터뷰를 통해 김태경 교수가 현재 삼겹살 가격 상승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보고, 현재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전문가임을 확인했으므로 면담자로 선정했다.

▶ 인터뷰일시: 2024년 7월 1일

▶ 추가 인터뷰일시: 2024년 8월 28일

▶ 인터뷰 방법: 메일을 통해 질문지를 전달한 후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Q1. ‘삼겹살 도매가와 소매가의 가격 격차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삼겹살 도매가와 소매가의 가격 격차는 유통과정마다 도축, 소포장 등 상품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며 작업비(인건비)가 투입된다. 또한, 유통과정을 거치면 고기 무게가 줄어든다. 돼지 110kg이 농장에서 출하되면 최종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50kg 이하인 식이다.

### Q2. ‘뉴스에서 교수님께서 돼지고기는 복합 유기 생산체라고 하셨는데, 이는 삼겹살 가격 상승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 ‘복합 유기 생산체’라는 것은 돼지고기에 여러 부위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없는 돼지고기 앞다리, 뒷다리 가격이 낮아져 삼겹살 가격이 높아진다. 그리고, 사료값 상승 등 생산비 상승분의 가격이 수요가 많은 삼겹살 가격에 더해져 삼겹살 가격이 더욱 상승한다.

### Q3. ‘유통구조가 아닌 가격 구조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삼겹살 상승의 원인은 유통구조가 아닌 가격 구조 문제라는 것은 삼겹살의 유통이윤이 50%로, 일반적인 물품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답변 검증〉 ‘삼겹살의 유통이윤이 50%로, 일반적인 물품과 비슷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검증하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의 2019년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한 결과 한국의 우유 유통마진율은 38%였다. 또한, 한국유통혁신연구원 자료(2011)에 따르면, 소비자 가격 중 유통이윤(도소매 통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10개 품목 평균 41.4%였다. 이에 유통이윤이 50%라는 주장,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유통마진율이라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돈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6월 12일 자 보도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상승'과 '도매가격'의 형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1. '인건비 상승이 돼지고깃값 상승보다 삼겹살 외식비 상승에 끼친 영향이 더 크가요?'**

-> 인건비 상승 요인이 더 크다.

**Q2.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두당 고기 가격의 평균과 같으며, 매일 바뀐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한국에서 하루에 도축하는 두수와 비교해 도매시장에서 경매에 부쳐지는 두수는 얼마 되지 않아 경락가격으로만 돼지고기 가격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답변 검증>** '한국에서 하루에 도축하는 두수와 비교해 도매시장에서 경매에 부쳐지는 두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020년 도매시장 돼지 도체 경매 두수 및 비율'을 참고하여 검증한 결과, 국내 전체 도축 두수 18,340,000두 중 도매시장 상장 비율은 956,000두인 5.2%였다.

**2. 한돈 자조금 관리 위원회(한돈 미래 연구부)**

▶ 인터뷰 일시: 2024년 8월 28일

▶ 인터뷰 방법: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삼겹살 외식비 중 삼겹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보도 자료에서 제시된 삼겹살 도매가격의 출처를 질문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이 외식비를 발표한 날과 같은 날에 축산

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한 자료를 활용했다고 설명하였다. 탕박 돼지의 6월 11일 경락 가격 조회 결과 kg당 평균 5,149원으로 지육 경락가격 측면에서 보면 사실이 아니었고, 식육 포장가격으로 비교하였을 때는 6월 2주 기준, kg당 전국 평균 17,935원(200g당 3,587원)으로 87원 차이가 있었다.

**돼지도체 등급별 경락가격**

선택조건: 조회기간 | 2024-06-11 ~ 2024-06-11 | 품목구분 | 탕박 | 성별 | 전체 | 등급구분 | 등급별 조회

발표 일시: 2024-06-12 10:00 (단위: 원/kg, 두)

구분	전국 (계주 제외)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전국	
		도드람	협신 식품	상성 식품	농협 부원	소계		농협 올성	김해 속공	부경 속공	신승 산업	농협 고령	소계	익산	농협 나주	상호 속산		소계
1+	6,233 (517)	6,136 (113)	6,503 (42)	6,456 (22)		6,264 (177)			6,331 (264)		5,808 (66)	6,228 (330)		5,615 (6)	6,188 (4)	5,843 (10)	6,526 (178)	6,307 (695)
1	6,148 (488)	6,143 (79)	6,356 (58)	6,281 (22)		6,241 (159)			6,254 (248)		5,561 (64)	6,117 (312)		5,554 (11)	6,217 (6)	5,802 (17)	6,306 (269)	6,202 (757)
2	5,480 (448)	5,781 (38)	5,849 (54)	5,824 (5)		5,822 (97)			5,763 (160)		5,252 (105)	5,570 (265)		4,634 (83)	5,708 (3)	4,681 (86)	5,864 (844)	5,700 (1,092)
통외	3,256 (478)	4,283 (3)	3,842 (2)			4,083 (5)			3,216 (359)		4,370 (28)	3,254 (387)		3,192 (86)		3,192 (86)	3,583 (79)	3,293 (557)
통외 제외	5,980 (1,453)	6,078 (230)	6,207 (154)	6,307 (49)		6,151 (433)			6,171 (672)		5,502 (235)	6,005 (907)		4,816 (100)	6,088 (13)	4,989 (113)	6,092 (1,091)	6,026 (2,544)
모든	3,104 (241)								3,104 (241)			3,104 (241)					2,416 (3)	3,096 (244)
평균	5,149 (1,931)	6,053 (233)	6,169 (156)	6,307 (49)		6,124 (438)			4,830 (1,031)		5,412 (263)	4,925 (1,294)		4,219 (186)	6,088 (13)	4,388 (199)	5,910 (1,170)	5,411 (3,101)

**3. 광탄축산**

▶ 인터뷰 일시: 2024년 8월 28일

▶ 인터뷰 방법: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1. '돼지고기의 유통 단계는 무엇인가요?'**

-> 농장에서 도축장으로 이동, 육가공(식육 포장처리업체)을 거쳐 도매된다. 도매 단계를 거쳐 정육점 등으로 이동하게 된다.

**Q2. '정육점에서 식당을 대상으로 돼지고기를 판매하기도 합니까?'**

-> 식당마다 다르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 판매는 대용량으로 하기도 하고 소량만 판매 하기도 한다고 한다.

**Q3.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변화가 있었습니까?'**

-> 가격에는 지속적 변동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승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답변 검증〉 '돼지고기의 유통 단계'에 대한 답변을 검증하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021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사실이었다.

**4. 고양시 '우야우야' 매니저**

▶ 인터뷰 일시: 2024년 8월 31일

▶ 인터뷰 방법: 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1. '삼겹살 외식비에서 제반 비용의 세부적인 항목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나요?'**

-> 가게별로 차이가 있지만, 식재료 3~40%, 인건비 30%, 가게 주인이 30%를 가져간다. 또한, 가게 주인이 가져가는 지분에는 월세 등이 포함된다.

**Q2. '식비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 인건비이다. 예전에는 삼겹살 외식비의 20~30%를 인건비로 잡았는데, 현재는 3~40%를 인건비로 잡는다.

**Q3. '원자재의 가격 상승 정도가 어떠한가요?'**

-> 돼지고기는 3~5월 사이에 가격이 상승하다가 5~7월에 하락, 이후 휴가철과 명절에 다시 상승한다.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기는 하지만 하한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결국 고깃값 등 원자재의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Q4. '개점 이후로 가격을 올리신 적이 있나요?'**

-> 1~2년 정도의 간격으로 1,000~2,000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질문에 관한 교차검증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질문내용	삼겹살 도매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	인건비 상승이 돼지고기 가격 상승보다 삼겹살 외식비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인건비가 전체 삼겹살 외식비 중 차지하는 비율
김태경 교수	○	○	30%
식당 '우야우야' 매니저	○	○	3~40%
정육점 '광탄축산'	○	○	
문헌 자료	○		30%
문헌 자료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소비자가격> 기간별가격		<a href="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4&amp;tblId=DT_114054_028&amp;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4&amp;tblId=DT_114054_028&amp;conn_path=I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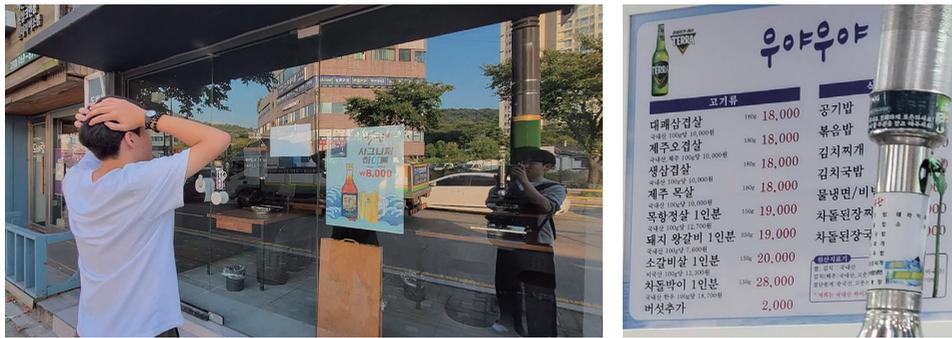


**직접 실험해볼 수 있는 방법**

돼지 구이 전문점과 여러 식료품점에 방문하였다. 외식비용이 얼마인지 체감하기 위해 삼겹살 전문점에 직접 찾아가 외식비용을 확인했다. 2024년 7월에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돼지 구이 전문점을 방문하였다.



생삼겹살 1인분 200g에 15,000원 정도가 나왔다. 삼겹살 2인분을 시켰는데, 다양한 채소들이 함께 나왔다. 고기보다 채소가 더 많았다.



경기도 파주시의 삼겹살 전문점에 방문했지만, 휴무 안내를 보고 좌절. 2024년 8월에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돼지 구이 전문점을 방문하였다. 생삼겹살 1인분 (180g)에 18,000원인 것을 확인하였다.



2024년 8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다른 삼겹살 전문점에도 방문하여 국산 생삼겹살 1인분(180g)에 14,000원인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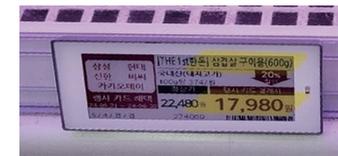
**기사 4)** 이를 바탕으로 기사 ‘삼겹살 1인분 2만 원 시대…'서민음식 맞나요?’ (함현지, 연합뉴스TV, 2024.06.24.,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624004300641?input=1825m>)를 검증하였다.

검증

돼지는 복합 유기 생산체이므로 하나의 가격이 내려가면 나머지 가격이 올라간다. 앞다리, 뒷다리 가격이 삼겹살에 비해 낮다.

- 검증결과: ‘사실임.’

- 검증자료 및 방법: \*모든 가격은 2024년 6월 30일 기준임



**1. 포천 이마트에브리데이**

국내산 삼겹살 구이용 100g당 3,747원이다.



**2. 롯데슈퍼 하남감일점**

국내산 삼겹살 구이용 100g당 3,990원, 국내산 목심 구이용 100g당 3,990원, 국내산 앞다리 살 구이용 100g당 2,700원이다.



**3. 하나로마트 마장농협 본점**

국내산 삼겹살 구이용 100g당 3,100원, 국내산 돈마호크 구이용 100g당 2,700원, 국내산 돼지갈비 구이용 100g당 1,500원, 국내산 목살 구이용 100g당 2,975원이다.

위 사진들은 조원들이 직접 서로 다른 지역의 마트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하지만 두

마트의 사진을 보면, 같은 국내산 구이용 100g 기준 삼겹살 가격이 제일 비싸고 다른 부위 가격은 삼겹살 가격과 같거나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뉴스 내용은 사실이다.

###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

위 사진들은 조원들이 직접 서로 다른 지역의 마트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두 마트의 사진을 보면, 국내산 구이용 100g 기준 삼겹살 가격이 제일 비싸고 다른 부위 가격은 삼겹살 가격과 같거나 대부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뉴스 내용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보기'를 통해 마트 삼겹살 가격과 외식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다른 지역들보다 서울의 삼겹살 가격이 가장 높았고, 수입 삼겹살보다 국내산 삼겹살이 훨씬 비쌌다. 마지막으로 다른 부위와의 가격 비교를 통해 삼겹살 가격이 대부분의 부위보다 20~40%가량 더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으로 방문할 수 있는 가게의 수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확인하기

들어보기

확인해보기

④ 반론의견

### RED 팀 : 강승보

#### 반론 1

삼겹살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부위의 가격이 하락한다. → 한국 육류유통수출협회에서 조사한 2024년 5월 2주까지의 돼지고기 부위별 시세를 보면 삼겹살 가격과 함께 다른 부위의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삼겹살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부위가 하락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반론 2

##### ◆ 돼지고기 가격, 계절적 요인...“상반기 상승하다 추석 이후 하락 경향”

한돈 자조금 측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삼겹살 외식비는 조사대상 39개 품목 중 31번째로 상승률이 낮은 품목에 해당한다.”라며 “‘금겹살’과 같은 표현은 마치 돼지고기 가격 급등이 원인이 되어 삼겹살 외식비가 오른 것으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이어 “삼겹살 외식비는 다른 외식비에 비교해 매우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점, 외식비와 달리 소비자물가지수와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한 점을 미루어 보아 ‘금겹살’과 같은 표현보다는 현 고물가 시대에 삼겹살이 그나마 서민 음식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봄부터 여름까지 상승하다 추석 이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특정한 이슈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삼겹살 가격 상승은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을 반복한다고 한다. 따라서 삼겹살 가격 상승은 이 시기에 매년 반복되던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크게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없다.

## 반론을 재반박하는 근거

### 재반박 1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봐선 당연한 상황이다. 그러나 삼겹살이 다른 부위보다 많이 상승하고 있다. 돼지는 복합 유기 생산 체이므로 돼지 한 마리에서 다양한 부위들이 나오기 때문에 각 부위의 공급량은 같으나 부위마다 수요가 달라 한 부위의 수요가 상승하면 다른 부위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 상황은 인플레이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이다.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격이 증가하고 있을 때는 증가율이 삼겹살보다 떨어지게 된다.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삼겹살이 더 크게 상승세를 그리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 재반박 2

삼겹살의 가격 상승이 매년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될 만한 이슈라 한다면 아니라고 확답할 수 있다. 삼겹살 가격 상승에 대한 오해와 관심의 결여는 우리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관심과 동의를 얻은 문제 상황만 국가적으로 해결 방침을 논의한다. 해당 이슈는 고물가 시대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이 절실하다. 매년 삼겹살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때마다 관련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러한 기사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미미하게 상승하고 있는 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기사로 인해 삼겹살 가격에 대한 오해가 생겨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공급자의 경제적 피해와 소비자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한, 돼지고기 경락가와 실제 우리가 소비하는 돼지고기 외식비 사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기사들이 작성되면서 왜곡된 정보가 사람들에게 각인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 계획과 패턴에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상 자체가 자주 있는 일이라 해서, 그 심각성까지 미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는 삼겹살 가격 상승의 원인과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동시에 왜곡된 내용의 기사 보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해야 할 것이다.



## 결론 작성하기

**검증 주제: '외식 삼겹살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이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최근 삼겹살 가격이 2만 원대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쏟아지며 '금사과'에 이은 '금겹살' 논란이 일었다. 일부 매체는 삼겹살 외식비 상승 원인을 돼지고기값 인상에서 찾았다. 이에 양돈 농가는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했다. 돼지고기의 경락가격이 3,500원에 불과하며, 이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쳐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대중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삼겹살 가격의 진실은 무엇일까?

첫째, **삼겹살의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삼겹살의 산지-경매가격은 2024년 6월 28일 기준 kg당 약 4,609원이었다. 이는 동년 5월 31일 대비 500원 상승한 가격이다. 2024년 1~5월의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낮았으나 6월에 5,000원 후반에서 6,000원 초반까지 상승하였다. 삼겹살의 월별가격 변동이 매년 있었던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돼지고기 가격은 상승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삼겹살(100g)의 소비자가격은 2021년 평균 2,429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2,534원으로 올랐다.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정육점 '광탄축산'과 고양시 소재의 식당 '우야우야'를 인터뷰한 결과, 삼겹살 가격이 월별로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는 매년 오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즉, 삼겹살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였다.

둘째, 조사 결과 삼겹살 외식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이라는 지적은 대체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통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돼지고기 가격뿐만 아니라 채솟값, 인건비 등 기타 제반 비용도 같이 상승한 점을 고려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식 육류 음식점 평균 인건비는 약 224만 원으로 전년의 약 1.3배(56만 원 증가)였다.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공개 서비스에

따르면, 삼겹살 100g당 소비자가격 평균은 2021년 2,397원에서 2022년 2,615원으로 약 1.09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인건비가 삼겹살 외식비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국대 식품 유통경제학과 김태경 교수와 식당 ‘우야우야’ 매니저를 인터뷰한 결과도 이와 같았다.

셋째, 많은 기사에서 인용되고 있는 한돈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주장을 검증했다. ‘삼겹살 외식비 중 실제 삼겹살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3,500원으로 17.4%에 불과하며, 82.6%는 인건비, 임대료, 전기요금, 기타 농축산물 재료 등 제반 비용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식육 포장가격을 보았을 때 3,587원으로 근사하였고, 축산물품 도매 업체(미트박스)에서 제공하는 가격으로 직접 평균을 냈을 때는 200g당 약 3,760원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5월 돼지고기 도매가격 역시 kg당 5,27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 하락하였다는 주장은 어떤 부위를 기준으로 보도 자료를 작성하였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검증한 결과 돼지(탕박) 1kg당 평균 경락가격은 2023년 5월 5,340원에서 2024년 5월 5,907원으로 오히려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설명도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것과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축산물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돼지고기가 예외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광탄축산’이나 ‘우야우야’ 등 정육점, 돼지 구이 전문점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축산업계와 요식업계 종사자들은 돼지고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느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품목별 가격지수를 해당 품목이 가계부문의 총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한 지수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가계와는 다른 지출 구조를 보일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삼겹살 외식비와 연관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외식 삼겹살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이다.’라는 대체로 거짓이었다. 삼겹살의 소비자가격 등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외식 삼겹살 가격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인건비로 보인다. 조사 중 삼겹살 가격을 둘러싼 혼란의 원인이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에 있음을 확인

하였다. 언론의 경우 일부 기사는 기사 제목에서 삼겹살의 소비자가격과 외식비용을 모두 삼겹살로 통칭하고 삼겹살의 무게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불필요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미하게 상승하고 있는 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기사도 많았다. **소비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을 보도한 점이 가장 문제이다.** 많은 기사가 ‘경락가격이 3,500원에 불과하다.’ 혹은 ‘실제 소비자가 사는 돼지고기의 가격은 3,500원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탕박 돼지의 6월 11일 경락가격 조회 결과 kg당 평균 5,149원으로 3,500원이 아니었다. 또한, 경락가격의 경우 돼지 도축 두수보다 경매 상장 두수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삼겹살 가격의 등락을 가늠하는 척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물가정보에 따르면 2024년 5월의 삼겹살 200g당 소비자물가는 5.324원(서울 기준)이었다. 실제로 3곳의 마트를 조사한 결과 삼겹살 100g당 가격은 3,100원~3,990원으로 기사의 보도 내용은 도매가와 소비자물가를 혼동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돈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보도 자료를 충분한 사실 검증 없이 인용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삼겹살 가격에 대한 오해는 삼겹살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 등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언론은 책임감을 느끼고, ‘금겹살’ 이슈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사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미디어 콘텐츠

## 삼겹살 살인사건

### 콘텐츠 소개

#### 📍 기획의도

여러 기사에서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 원에 근접하였으나 실제 가격은 3,500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금겹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로 인해 삼겹살의 ‘실제 가격’은 무엇인지, 삼겹살 가격이 3,500원에 불과하다면 외식비가 상승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 진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삼겹살의 가격과 삼겹살 외식비 상승에 관해 그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MBC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편집 방식을 일부 빌려 재미를 더했다. 그리고 기사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태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사실 검증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 📍 상세설명

**줄거리** : 한 유명 교포 유튜버가 한국의 고깃집에서 고기를 맛있게 먹은 뒤, 영수증을 받는다. 가격을 확인한 유튜버는 쇼크사하고, 이는 사회적 논쟁거리가 된다. 대중은 지나치게 상승한 고깃값에 대한 충격을 쇼크사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고깃집, 농가가 수많은 비난과 시위에 시달린다. 이 상황을 지켜본 한 정의로운 탐정은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움직인다. 탐정은 고깃집, 정육점,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가 삼겹살 가격, 외식비 상승의 원인과 오해를 파헤치기 위해 힘쓴다. 그 과정에서 삼겹살 가격 상승의 진실을 알게 된 탐정은 이를 언론에 전파한다. 사람들은 시위를 멈추고 오해를 바로잡는다.

#### 캐릭터

1. 교포 유튜버(아이쇼 슬로우): 한국을 여행하다 삼겹살을 먹은 후 가격을 보고 충격을 받아 사망한다. 그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2. 정의로운 탐정(막시무스): 삼겹살 가격 상승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 진실을 밝힌다.
3. 시위하는 군중: 유튜버의 사망을 계기로 분노해, 삼겹살 가격 인하 및 진실을 밝히려는 시위를 진행한다.
4. 정육점 직원, 자영업자: 삼겹살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탐정에게 각자의 생각을 말해준다.
5. 조수: 탐정을 보좌한다.
6. 교수: 삼겹살 가격에 대한 교차검증을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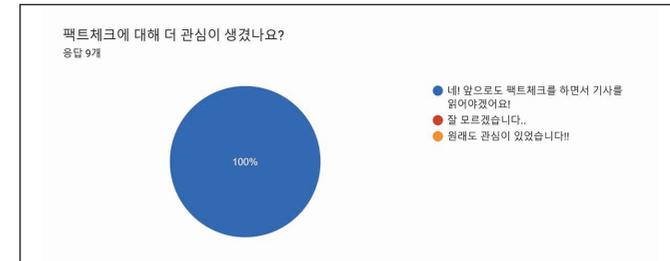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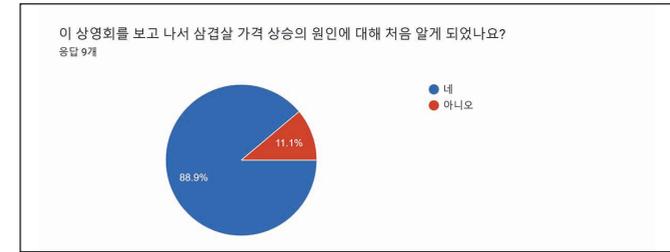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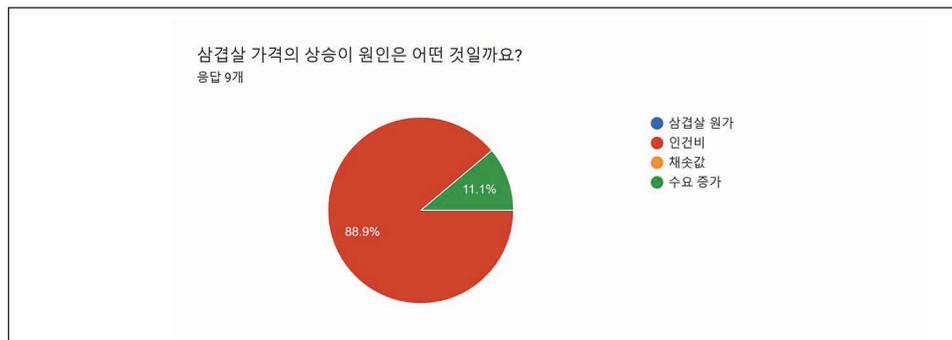


#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삼겹살 가격에 대해 사실 검증한 결과를 확산하기 위해 상영회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 내에서 진행했다.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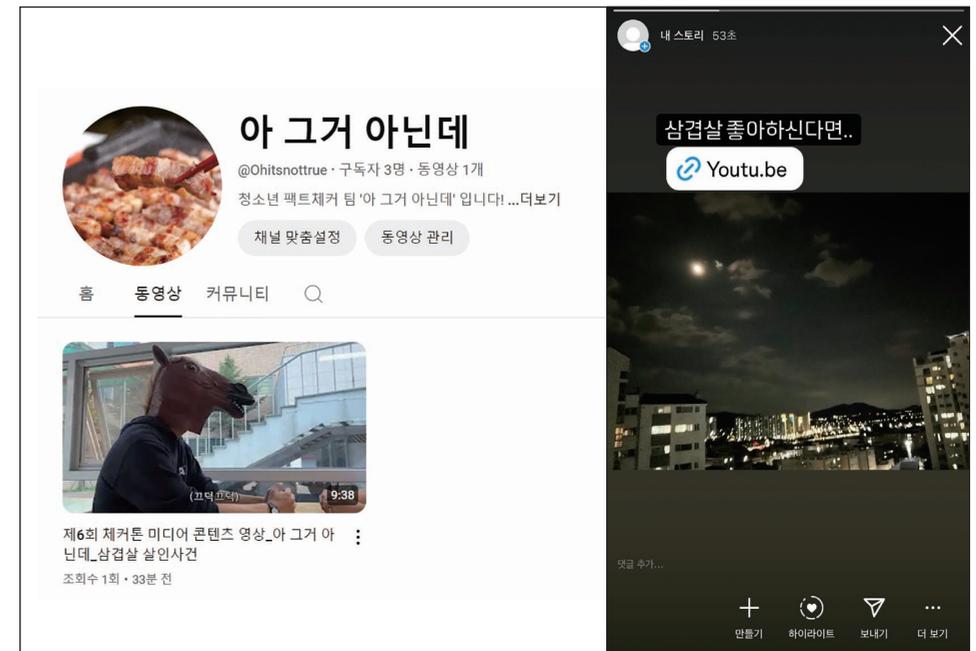


상영회를 진행한 후 영상을 통한 인식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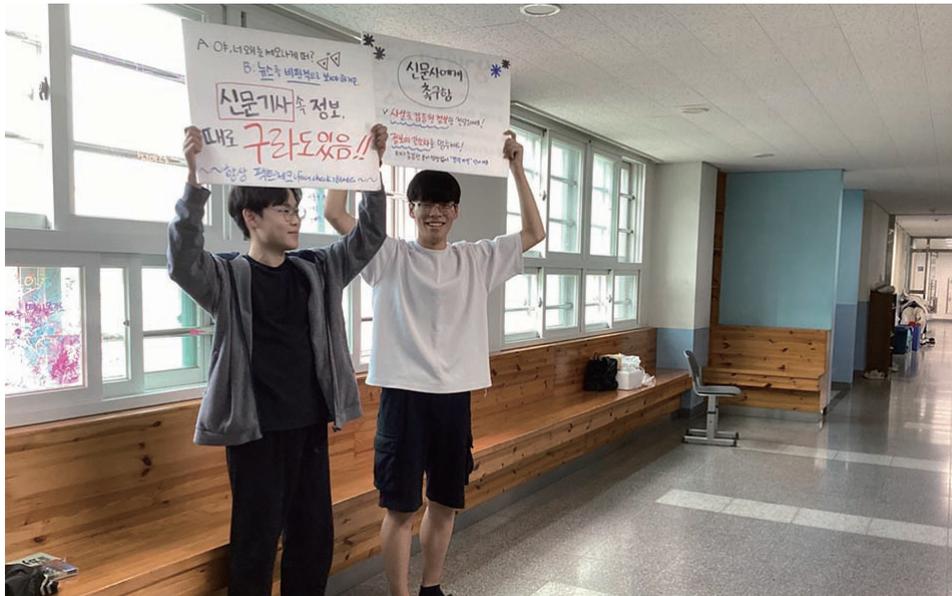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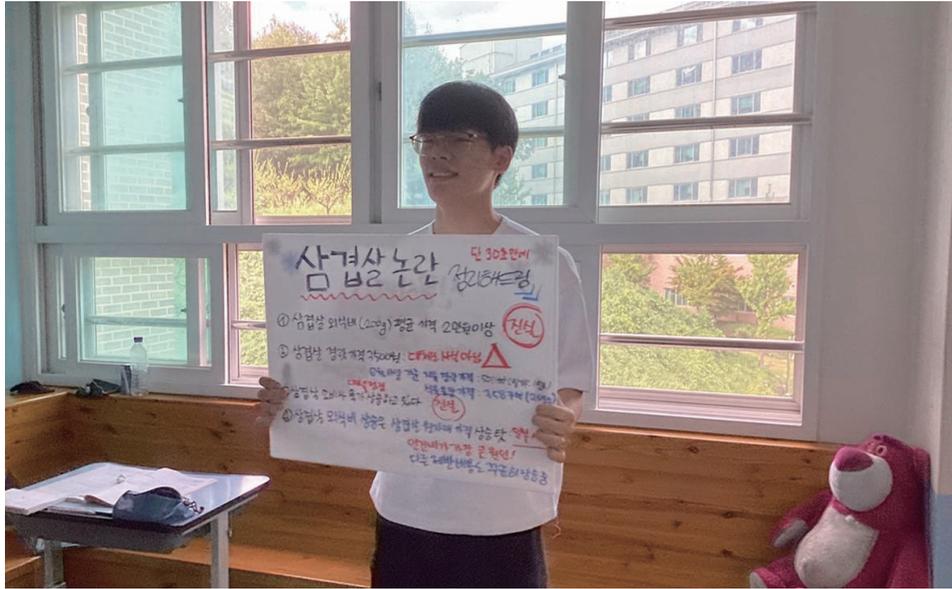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로, 학생들에게 우리 팀이 조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의 정보 수용 태도 또한 향상되었다. 유튜브 등의 창구를 통해 영상을 더욱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해 결과를 보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튜브에 '아 그거 아닌데'라는 팀명으로 계정을 만들어 미디어 콘텐츠를 게시하였다. 이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활용하여 영상을 홍보했다.



또한, 팻말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삼겹살 가격 상승을 조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신문사와 뉴스 소비자들에게 사실 검증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학교 복도에서 팻말을 들고 진행하였다.



## 참여소감

### 김가희

체커톤 대회를 준비하며, 팩트체크를 깊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다. 특히,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는데, 팩트체크를 알기 전엔 나조차도 평소 뉴스 기사 내용을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기자는 글을 쓰는 전문가니, 신뢰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금겹살 논란에 대해 교차검증을 하며 뉴스 기사 속 신뢰할 수 없는 자료도 많고, 원본 자료와 다른 내용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 내면서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비판적인 뉴스 소비자가 되자고 다짐하게 되었다. 추가로 금겹살 논란이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해, 기자 한 사람의 근거 없는 정보 혹은 과장된 보도로 큰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기자분들께서는 자신의 글이 사실인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를 항상 경계하며 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뉴스 소비자들은 뉴스를 온전히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내용이 사실인지를 검증하는 팩트체크를 습관화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팩트체크는 단순히 사실과 거짓을 밝히는 작업을 넘어서, 거짓 정보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차단하는 예방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모두의 노력으로 거짓 없는 투명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 김세윤

팩트체크를 진행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 중 하나는 복잡한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뉴스 기사를 다시 보니, 기사에서 대중들이 낯설게 여길 법한 많은 내용을 생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탕박’, ‘박피’, ‘산지 경매가격’, ‘경락가격’, ‘소비자가격’ 등의 생소한 용어는 기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주제의 핵심과 맞닿아 있었다. 언론이 독자들이 어렵게 느낄 법한 정보나 복잡한 배경 설명을 빼고 보도하면 보도의 질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금겹살’ 사태처럼 잘못된 정보가 퍼질 우려가 있다. 복잡한 주제일수록 언론은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앞으로 언론이 더욱 책임감 있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대한다.

### 강승보

정말 뜻깊은 나날이었다. 처음엔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대회였지만, 과제를 수행하며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대회를 대하는 마음가짐에도 변화가 생겼다.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과 팩트체크가 더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 머릿속에 박혀 일상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그래도 난 그 변화가 싫지 않았다. 대회가 진행됨에 따라 언론에 대한 내 자세와 가치관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겪으며 대회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왠지 모를 감격을 느꼈다. 다사다난한 여정을 거치며 본선까지 다다랐을 때의 퀘스레 뜨거워지는 마음마저 겹쳐 열정을 한층 돋구었다. 언론에 쏟아져나오는 기사들의 허점과 모순을 직접 밝혀내는 동안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취해 사명감과 의지를 마구 불태우며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대회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어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체커톤 주제 선정 과정에서 삼겹살 가격 상승에 관한 기사 속에 원인과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정보가 존재함을 인식했고, 정확한 사실을 훑아보고자 이를 팩트체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사와 논문을 조사하면서, 그 속에 담긴 자료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인터뷰, 자료 원본 탐색, 현장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차검증을 시행했다. 팀원들과의 협동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해내는 경험은 내게 귀중하고 가치 있는 기억으로 남았다. 지금까지의 실수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위기에 맞설 기회를 주었던 체커톤이라는 선물은 아마 내게 다신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다.

### 한승헌

삼겹살이 20,000원까지 올랐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었다. 팩트체크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축산물, 농산물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문제들도 나중에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론이 용어를 혼동하여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언론이 용어를 신중하게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팩트체크를 하면서 기사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부 기사가 과장하거나 자신이 강조하는 부분의 자료만 가져와 넓은 시선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쉬웠다. 앞으로도 기사를 팩트체크 하면서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겠다고 다짐한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친구들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중간중간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기숙사 고등학교여서 찍는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음에 뿌듯함을 느꼈다. 영상 촬영에 도움을 준 우리 반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캠페인 또한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팩트체크한 내용을 알리기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진행했다. 체커톤 대회를 준비한 것이 고등학생 시절의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